

고가 렌터카 법인 판매 늘음

<https://www.news1.kr/industry/auto-industry/5477629>

◇고가 렌터카 법인 판매 늘었다

13일 렌터카 1위 기업인 롯데렌탈(089860)에 따르면 지난 1~5월 취득가 8000만 원 이상의 장기 렌터카 법인 고객 판매 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두색 번호판으로 법인 판매가 급감한 것과 달리 장기 렌터카 판매가 소폭 늘어난 것은 이른바 '임원차'로 불리는 제네시스 등 국산차 브랜드의 세단 판매 비중이 높아서다. 실제 이 기간 제네시스가 전체 판매의 89.8%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기아가 3.5%를 기록했다. 기타 수입차의 점유율은 6.7%에 그쳤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차량 가액 8000만 원 이상인 법인 구매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의무로 부착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초고가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매한 뒤 개인이 사적 이용하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렌터카 업계가 받는 영향이 적은 이유 역시 이 때문이다. 장기 렌터카의 경우 초기 구매 비용이 없어 비용 절감이 가능해 국내 기업들이 주 고객이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들은 주요 임원 등 경영진 차량으로 주로 G90·G80 등 국산 세단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당초 연두색 번호판 도입은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매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제네시스 등 국내 세단은 기업 오너·임원차 성격이 강해 큰 기업체가 주 고객인 렌터카 업계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고가 장기 렌터카는 판매량 소폭 증가

최근 고가 법인차 시장이 급감하는 추세 속에서도 롯데렌탈의 장기 렌터카 판매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렌탈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8천만 원 이상의 장기 렌터카 법인 고객 판매 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3.3% 증가했다.

<https://econmingle.com/car/corporate-car-license-plate-light-green/>

[S리포트] 연두색 번호판? 피하면 그만

[법인차, '편의' 아닌 '특혜' 논란]③ 취득가액 기준 허점 드러나...기간 및 가격 설정 변경 '꼼수' 등장

<https://www.moneys.co.kr/article/2024052410400221996>

관련업계에서는 업체들이 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점이 판매량 회복에 영향을 줬다고 본다. 대표적으로 단기 계약을 통해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피하는 방법이다. 최근 일부 렌터카 업체에서 전용 번호판 부착을 회피하고자 단기 계약(1년 미만)을 통해 일반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유도한 사례다.

국토부는 "8000만원 이상 동일 차량이 임차기간 합산 1년 이상이면 법인차 전용번호판 부착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8000만원 이상 동일 차량의 임차기간이 합산 1년 이상인 경우에도 전용번호판 부착 대상이 되며 전용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차는 개정된 법인세법령에 따라 차 관련 비용을 법인 경비로 처리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역시도 차종 변경 단기렌트 등 편법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꼼수는 이른바 '다운계약'이다. 고가 법인차 기준인 8000만원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할인 혜택 등을 적용해 실제 출고가격을 8000만원 아래로 꾸민 뒤 차액을 별도 지불하는 식이다.

법인차 전용 번호판 장착 대상은 8000만원 이상 법인 소유 및 장기 임대(리스, 1년 이상 렌트)차, 관용차다.

이에 국토부는 법인용 신규등록차를 모니터링하며 국세청과 공유, 법인차 세금 탈루를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제도 운영 과정에 미흡한 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실효성 높이려면 법인차 '관리'부터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를 참고하면서 법인차 혜택 자체를 손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조급한 면이 있었다는 것.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현재 연두색 번호판은 일부 계층의 특혜로 여겨지는 데다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부정적 낙인효과를 주고 있다"며 "싱가포르처럼 아예 법인차를 인정하지 않거나 미국처럼 출퇴근용이나 가족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못 박는 등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의 상징’으로 보기도

향후 필요한 개선책은?

법인차 구매와 관련 없는 평범한 이들의 반응도 엇갈린다. 낙인 효과를 노린 정책임에도 연두색 번호판을 ‘부의 상징’으로 여기며 동정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법인차 번호판이 제 역할을 하려면 차량 가액 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등록 차량에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고가 수입차 판매 급락의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법인차 번호판은 이미 어느 정도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전히 남아있는 실효성 논란을 종식시키려면 해당 정책의 본질인 ‘회사 자산의 사적 유용’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회사 상호를 차량의 모든 방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랩핑을 의무화하거나, 보다 엄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여전히 활발하게 이뤄지는

사적 법인용 차량

어느덧 시행한 지 1년이 넘은 제도임에도 여전히 실효성과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연두색 부착을 회피하고 위한 ‘다운 계약’이 곳곳에서 성행하고 있다. 1억 원이 넘는 차량을 8,000만 원 이하로 계약하고 나머지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등 온갖 꼼수를 사용하여 규제에서 벗어나는 일이 다반수다.

또한 법인 대표가 개인사업자 명의로 차를 출고한 이후 비용은 법인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사용되고 있다. 개인사업자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아직 까지도 녹색 번호판을 부착한 차들이 골프장, 백화점 심지어 학교까지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성과만 놓고 보면 연두색 번호판은 그저 자동차 시장을 방해하는 요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연두색 번호판의 취지에 맞는 실질적인 대책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